

정조공파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

안동권씨정조공파총회(회장 권인탑)는 7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중앙로(동부동) 광석빌딩 4층 정조공파총회관에서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권영목 대총원외교, 권인탑 정조공파총회장을 비롯하여 권주연 안동총친회장, 역대회장, 종회 자녀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조공파 보학강좌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 권인탑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회장인사, 안동총친회장 축사, 보학강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인탑 회장은 이날 정조공파총회 자녀로서 학업에 정려(精勵)하고 앞으로 승조정신 함양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수가 될 수 있는 권오민(한양대 의과대학 1년), 권용현(서울시립대 경영학과 1년), 권준하(강원대 기계공학부 1년) 등 남녀 대학생 22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권인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경북 영양군수가 안동권문의 후손으로서 당선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장학생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청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영목 대총원 외교는 안동권씨 15개파총회 중에서 정조

공파와 시조공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권주연 안동총친회장은 축사에서 안동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파(派)는 정조공파 뿐이며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2006년부터 정조공파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조공파는 해마다 30~12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난해까지 9년 동안 4백 60명에게 총 1억 3천 8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2부 행사에서 권인탑 회장은 안동권씨 사시유래(賜姓由來), 권문(權門)의 사시(四始), 안동권씨 15파(派) 원류(源流), 태사묘(太師廟), 능동묘역(陵洞墓域) 및 재사(齋舍), 남중공단소(郎中公壇所), 안동권씨의 항렬(行列), 정조공파 원류(源流) 등의 자료를 가지고 40분 동안 보학강좌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회관 인근에 있는 <호동이숯불촌>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화기에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즐겼다. <보도부장 권영진>

애국지사 남곡 권용두 선생

추모비 제막식

애국지사 남곡 권용두 선생 추모사업회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영흥철 대전시장,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권선택 대전시장후보(2014. 6·4선거 당선) 권호준 대전총친회장, 대전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대전고 총동창회, 역대 회장들,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의 묘교인 대전고등학교 교정에서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먼저 회장단, 고문, 유족이 추모비를 제작하고 김중환 대전 CMB방송국 앵커의 사회로 국민의례, 애국가, 묵념에 이어 김영훈(소설가, 대전문인총연합회장)의 건립문 낭독, 전민(시인, 호서문화회장)의 새김시 낭독, 김미애(한국 시낭송협회장)의 추모시

낭독, 김현규(대전고 교장)사업추진 경과보고, 김용재((사)3·8 민주여거기념사업회 공동의장)추모사, 영흥철 대전시장, 삼대평(前 충남도지사) 축사와 3남 권중원씨의 유족인사가 있었다.

한울수 대전 MBC방송국 악단장의 “선구자의 노래”, “꽃중에 꽃”, “그향의 봄” 등 3곡의 연주가 있었으며 행사 후 추모사업회에서 발행한 「애국지사 권용두 선생의 생애와 문학」 책자에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유족측이 준비한 다과회가 있었다.

이 추모비의 비석 전면 제작(題字)은 한국추사연목회 회장 卍山 崔泳煥 선생이 썼고, 홍상은 대전환경조형연구소 윤환식 제작, 추모비석은 보령석재 김양호 제작했으



며, 제작비 일부는 대전총친회(회장 권호준)에서 보조하였고, 전체경비는 유족측이 부담하였다. <유족 권중원>

북야공파청장년회 갑오년취회개최

북야공파 청장년회 권오의 회장 외 39명은 지난 7월19일 안포선 “나그네 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권계동 파총회장, 권주연 안동총친회장과 파총회 권기호, 권오국, 권영수 부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갑오년 취회(북간지)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과 시의회 권광택, 권난하 의원도 회원자격으로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계동 파총회장은 앞으로 우리 파총회를 이끌어 나갈 청장

년회원 여러분들의 높은 승조이념과 애족애친 사상에 격찬을 하며 우리 청장년회는 언제나 단결하고 화합하여 타문중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이런 좋은 전통을 영구히 지속시켜 북야공파총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격려금을 하사하였다.

청장년회는 1994년 결성된 후 매년 삼복중에 파내 각 문중을 순회하며 취회(聚會)를 개최하였으나 금년 행사는 사정상 이곳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염소 2마리와 파



△북야공파 청장년회 갑오년취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 떡 등 여러가지 음식물을 준비하여 파총회 원로분들을 모시고 무더위를 식히며 여흥과 정담을 나누고 회포를 풀며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파총회 총무부장>

한국로타리 총재단

새 의장에 권영성 부총재 취임

지난 7월 10일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룸에서 (사)한국로타리 총재단의장 이·취임식이 국내의 로타리 총재단, 지구총재를 포함 그리고 내빈으로 정희수 영천지역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과 권문(權門)에서는 권정달 대총원총재가 이날 권문을 대표하여 참석, 이외도 대총원 사무총장, 권오신 경주총친회장(로타리분지코리아 前이사장), 권민철(현 로타리지구 강릉, 영동지역 총재)족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는 역점사업으로 우리 6만 한국로타리 회원이 지혜를 모아 북한 동포 도우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저와 임기를 같이 할 한국로타리 각 법인 대표님과 현 총재님, 우리 전 총재 모두는 각 지구에서 열심히 도와 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근면과 관용, 배려입니다.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취임사에 가능했다.



△권영성 로타리 총재단의장이 취임사를 하고있다.



△권정달 총재의 축사와 권영성의장 부부

이어 윤상구 국제로타리 이사장의 격려사와 정희수 의원 축사의 축하 화답에 이어 권정달 대총원 총재는 “늦음이 무성한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안동권씨 대총원 권영성 부총재의 한국로타리총재단 의장 영진을 권문(權門)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국제로타리는 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구촌 방방곡곡에 120만 명의 회원이 직업을 통한 인도주의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로타리 가족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취임하는 권영성 의장께서는 安東權門의 34世 손으로 권문의 자랑인 일가 구봉군(一家 九封君) 집안 권보(權簿)의 후손이요 이조 개국공신 양촌 권근(陽村 權近)선생의 18代손으로 명문(名門)집안의 후손으로 선조

의 뜻을 이어 매사 충실하며 이웃을 돌보는 우리 권문의 숨은 일꾼으로 문사(門事)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권영성 부총재입니다. 한국로타리 클럽은 회원수가 세계4위요, 재단에 기부하신 기여도가 3위라 하니 한국에서 로타리에 봉사하는 국가가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훌륭한 리더쉽으로 열심히 봉사에 앞장서 주신 한국로타리총재단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축사 및 격려 성원(聲援)을 보냈 <권범준 홍보부장>

贈領議政行禮曹判書吉昌府院君諱愷

증 영의정 행 예조판서 길창부원군 휘협

그래서 광해는 그를 천거하였는데 권협이 관직에서 떠나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이따금 어지러워져 명나라 대신과의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문이이라며 엄청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변명을 하니 광해는 관례에 의하여 행하라고 명하였다.



△길흥군 증우의정 신증묘

권협은 명사신 권경우 일행과 함께 무더운 여름 길을 떠났다. 길가에 가뭇이 극심함을 보았다. 근고(近古)에 없던 것으로 손들판에는 싹이 하나도 없고 마을마다 짐승이 울고있고, 재단에 기부하신 기여도가 3위라 하니 한국에서 로타리에 봉사하는 국가가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훌륭한 리더쉽으로 열심히 봉사에 앞장서 주신 한국로타리총재단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축사 및 격려 성원(聲援)을 보냈 <권범준 홍보부장>

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었다. 이 소식을 듣고 중형 황(恒)이 찾아왔다. 광해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의 문제를 일으켰고 형 휘(愷)가 인목대비 폐도 정청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5천리의 길을 지척(咫尺)처럼 여겨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엄동설한(嚴冬雪寒)이었으므로 짙 짙한 일정에 노인의 기혈(氣血)이 아저 상로(霜露)에 손상되지 않았겠는가? 이듬해 1617년(광해군 9년)에 병사에 누웠다가 1618년(광해 10년) 정월 27일에 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66세였다. 권협의 부음(訃音)을 광해에게 보고하자

<1면에 이어>

野翁公의子孫들 모두忠과孝의 으뜸

장남은 동정공(同正公) 심기(審己)이고 아들은 통정대부(通政大夫) 광(日元)과 현(暎)이다. 차남 거창공(居昌公) 심언(審言)은 6남매를 두었는데 첫째 시(時)는 임진왜란에 창의(倡義)하여 동생들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여 임진왜란 후에빈시침정(禮賓寺僉正)으로 천거되었다.

매당공(梅堂公) 옥(旭) 심언(審言)의 둘째 매당공(梅堂公) 옥(旭)은 임진왜란에 정산(淸山)에서 창의(倡義)하여 의병장으로 싸웠으며 학문과 업적으로 경능참봉(敬陵參奉)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에 제수되었다. 어머니 남이 늙음에 벼슬을 버리고 시냇물이 임하는 제곡(濟谷)에 서당을 여니 제명사(諸名士)가 모였다. 예적과 싸움에 당신의 휘하 별장 강경인을 시켜 예병 수백을 배였고, 명장 이여승, 양호에게 전술전략에 대한 황무사오장(皇武誦五章)과 정유재란(丁酉再亂)시 진정소(親征疏)등의 서신

이 있고 왜란 후 선무원종공신3등에 녹훈되었으며 57세에 졸하니 훗날 종조부 장(樞)과 함께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함계공(咸溪公) 담(曇) 심언(審言)의 셋째는 함계공(咸溪公) 담(曇)이고 왜란에 형과 함께 의병활동으로 선무원종공신3등(宣武原從功臣3等)에 녹훈되었으며 좌승지(左承旨)로 추증되었다. 함계공의 손자 혜(鎚)와 향(鉉)의 효행에 대하여 석담 김광원이 쓴 효자양권전(孝子兩權傳)이 있다. 넷째는 춘우재(諱書)이고 일난 시 약관 24세의 나이로 형을 따라 의병활동을 함에 필요한 군사물자를 조달했고 특히 당시 예전에 주둔한 명나라 장수 양호에게 군량을 공급했다. 이로 인하여 일난 후 군자감 참봉에 제수되었다.

제4남 심사(審思)는 관직이 충순위(忠順衛)이며 아들은 혼(昕)이다. 혼(昕)은 5남매를 두었는데 장남 국원(克元) 차남 국여(克麗) 3남 국관(克寬)이다. 국관(克寬)은 임 난시 호종원종공신(扈從原從功臣)에 녹훈되고 훈련원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제6남 심행(審行)의 호는 취규재(聚奎齋)이며 중부(仲父) 충정공(忠定公) 벌(鵬)에게서 수학하고 사마시 후 성균관에 입소하였으나 곧 도계촌으로 귀향하여 부친을 따라 후학을 길렀다. 취규재공(審行)은 안동부사 권소(權紹)를 도와 시조 태사공 묘소를 개축하고 한시일 제사를 올리는 규례를 정하였다. 심행(審行)은 6남매를 두었는데 장자 희(暉)의 아들인 극강(克剛)은 호가 낙천당(樂天堂)이며 효행으로 추천되어 낭서(郎署)가 되었으며 둘째손자 극흥(克亨)은 유성룡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밀양교수(密陽教授)가 되었다. 심행(審行)의 차자 옥봉공(玉峰公) 위(暉)는 경주에서 동경교수(東京教授)로 학문을 닦았으며 강진현감(康津縣監) 예조좌랑을 지냈고 인동 북후면 도계서원(道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심행의 3자 연어정(鰲魚亭) 휘:오(喞)는 화행으로 선사랑(宣務郎)이 되고 후학을 가르치며 공자(孔子)의 위판(位版)과 향교(鄕校)의 판액(板額)을 쓰고 안동 태사묘(太師墓)의 판액(板額)과 능동 시조묘 비문(始祖墓碑文)을 썼다. 제7남 심지(審止)의 관직은 충순위(忠順衛)이며 아들 재성(再成)을 두고 재성은 7남매를 두었는데 장자 국원(克元)은 효행으로 좌랑에 2남 국형(克亨)은 효행으로 예빈시침정(禮賓寺僉正)에, 3자 국리(克利)는 효헌(孝憲)으로 장사랑(將仕郎)에 이르렀으며 5자 극상(克常)은 병자호란에 쌍령전투(雙嶺戰鬪)에서 순국하여 군기시침정(軍器寺僉正)에 추증되고 사적이 존주록(尊周錄)에 실렸으며 충신정려(忠臣旌闕)가 내렸다.

고양유림 유적지 탐방

고양유림은 2014년 5월 2일 10시에 75여명이 임진강 북쪽의 유적지 순방을 나섰다.

안동 권씨 10세손 권수평 추밀공 은청광록대부 상서 도성좌복야 상장군(銀靑光祿大夫 尙書都省左僕射 上將軍)묘역과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묘역과 참매를 하고 정헌공(正獻公) 삼한벽상삼중대광 도첨의정승판 전리사상호군계림부원대군(三韓壁上三重大匡 都僉議政正判典理事上護軍鷄林府院大君) 묘역을 탐방하면서 권정택 기로회장이 설명을 하였다.

이어서 증 영의정 허준 선생의 묘역에 도착하여 미리 나온 허 씨 문중의 종중에서 안내를 하여 묘소에 도착하여 유림들은 그들의 훌륭한 의술의 관하여 이야기와 서순오 태어나 모진 고생과 노력으로 내외원 수의와 정1품 보국승록대부 작위를 받았다. 선생은 언해 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동의보감 25권을 펴내, 찬도방문맥질집성, 난찬벽안방, 벽역신방, 간행하였다. 허준선생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128호로 등재되어 있다.

韓脩 柳翬 文敬公 묘소는 경기 파주 진동면 서곡리에 있다. 고려 축소왕 복위원년 계유 8월 22일에 태어나 충정왕 1년 17세 덕령부 주부에 보임되고 공민왕11년 임인 30세의 판후덕부사(判厚德府使)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우왕 9년 판후덕부사(判厚德府使)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상호군(上護軍)이 되었다. 경순왕릉(敬順王陵)

경순 왕릉은 신라의 여러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고령도 나부터 뒤편에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의 북쪽쪽에 위치하고 있다. 경순왕의 사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졌던 것을 1747년(조선영조 23) 후손들이 왕릉 주변에서 묘지석을 발견함으로써 되찾게 되었다. 따라서 경순 왕릉은 조선후기의 양식으로 재정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볼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제례가 봉행되고 있다.

경순 왕릉 주변에는 1986년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의 재실건물과 경순 왕릉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가 비각 안에 놓여있다.

송의전지(崇義殿址) 송의전 지는 조선시대에 전조인 고려시대의 왕들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들게 했던 송의전이 있던 자리이다. 이곳은 원래 고려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양암사가 있었던 곳으로 1307년에 고려태조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송의전의 시초이다. 정종1년에 왕명의 의해 고려 태조를 비롯하여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열왕, 공민왕 등 고려8왕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이후 1425년 세종 이르러 조선의 종묘에는 5왕을 제사하였는데 고려조의 사당에 8왕을 제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여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에 4왕만을 봉향토록 하였다. 1451년 문종조에는 전대의 왕조를 예 위하여 송의전이라 이름 짓고 고려4왕과 더불어 고려조의 총신 16명 부지겸·홍유·신승겸·유급림·배현경·서희·강감찬·윤관·김부식·김취려·조충·김방경·안우·이방실·김득배·정몽주 등을 배향토록 하였다. <기로회장 권정택>